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YOU ARE THE EVERYTHING

가제 : 내 전부인 너

저자 : Karen Rivers

출판사: Algonquin Young Readers

발행일: 2018년 가을

분량 : -

장르 : YA 소설



*** 엉뚱하고 소심한 십대 소녀의 풋풋한 첫사랑, 큰 반전이 기다리는 짝사랑 이야기**

*** 복잡미묘한 사춘기 청소년들의 심리를 생생하게 그린 소설**

고등학생 밴드 대회에 출전하러 난생 처음 해외여행에 나선 엘리스. 비행기에 처음 몸을 싣고 전 세계인의 관광지라는 파리로 날아갈 때만 해도 너무 흥분된 나머지 비행기 안이 어떤지, 바깥 풍경이 어떤지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길은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옆자리에는 단짝친구인 캐시 대신 조쉬가 앉아 있고, 무시하려 해도 너무 큰 비행기 엔진 소리와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같은 학교 친구들 소음이 못 견딜 지경이었다. 캐시가 앉은 자리는 엘리스의 바로 앞 좌석. “이제 너하고 난 끝이야. 너랑 말 안 해.” 캐시는 이 말을 던지고 자리를 조쉬와 바꿔버렸다. 늘 톡 쏘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편이라 저런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파리에서 있었던 큰 싸움을 생각하면 진심일 확률이 더 높다. 하지만 엘리스 입장에서는 캐시의 분노에 고마워서 절이라도 하고 싶을 뿐이었다. 캐시 대신 옆 자리에 앉은 조쉬는 엘리스가 너무 오랫동안 좋아해온 아이, 앞으로도 그 마음이 절대 변치 않으리라 확신이 드는 유일한 사람, 조쉬 해리스였기 때문이다. 약하게 코를 골며 잠든 조쉬와 주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좁은 좌석에서 연신 춤을 취대는 캐시 사이에 끼어 앉은 채, 그렇게 엘리스의 불편하고 황홀한 두 번째 비행이 시작됐다.

키도 크고 늘씬한 몸매에 누가 봐도 한눈에 시선을 잡아 끄는 예쁜 얼굴을 가진 캐시와 달리 엘리스는 스스로 평가하기에 평범한 수준도 못 되는 외모였다. 키도 작고, 안경을 걸친 얼굴에 딱히 눈에 띄지 않는 얼굴이 전부였다.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이 캐시는 집안도 참 화목했다. 오빠 세 명에 그림에서 튀어 나온 것 같은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도 함께 살고, 언제 놀러 가도 늘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한 거실에서는 부모님이 은은한 노래에 몸을 맡기고 블루스를 추곤 했다. 걸핏하면 고래고래 화를 내며 싸우는 캐시의 부모님과과는 영 딴판이었다. 캐시는 외모 탓인지 남

부러울 것 없는 환경 탓인지 늘 자신만만한 친구였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직선적인 캐시의 성격이 거슬리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붙어 다니는 단짝이었던 두 사람은 결국 파리에서 큰 싸움을 벌이고 말았다.

문제는 밴드 대회에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세계 곳곳 여러 학교 대표들이 참가한다기에 처음에는 다소 긴장도 되고 위축된 것도 사실이었지만, 엘리스는 사용하는 언어와 생김새만 다를 뿐 엉망진창 조율도 제대로 안 된 악기에 귀찮은 듯 대충 연주하는 건 어느 나라 밴드건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하지만 출전자 모두 수상을 노리는 건 사실이었고, 어쩌면 손쉽게 따낼 수 있었던 엘리스 네 밴드의 우승을 가로막은 건 다름아닌 엘리스였다. 멀쩡하던 플루트가 하필 무대에 올랐을 때 어디가 막혔는지 요상한 음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고, 당황한 엘리스가 어떻게든 음이 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없었다. 그러고도 3등을 한 걸 보면, 중간에 엘리스의 실수만 없었다면 정말 1등을 했을지도 모른다. 울적한 마음에 대회가 끝나고 홀로 에펠탑을 보러 간 엘리스는 그만 수많은 관광객 틈 속에서 어지러워 잠시 정신을 잃었다. 샌달 질질 끄는 행인들은 엘리스를 잔디마냥 툭툭 치고 지나가고, 겨우 정신이 든 엘리스는 가장 필요한 순간, 별볼일 없는 남자와 시간을 보내느라 자신을 버린 캐시에게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이렇고도 친구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날 대체 그 남자가 뭐길래 자신을 버리고 그를 택할 수가 있는지 엘리스로선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름다운 추억만 가득할 줄 알았던 파리 여행은 캐시와의 격렬한 싸움과, 싸구려 와인 때문에 혀와 치아, 입술이 새카맣게 물들어버린 충격적인 시간과, 낡은 호텔에서 술에 취해 흐느적대던 반 친구들의 골사나운 주정으로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파리에 가기 전, 캐시와 나란히 누워 드라마를 보면서 깔깔대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런데 유일한 친구가 사라졌다는 절망, 남몰래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말 한번 제대로 걸지 못한 짝사랑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흥분된 상황이 마구 교차하는 비행기 속에서 엘리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결말, 흔들리는 비행기처럼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 이야기가 시작된다.

<저자 소개>

캐런 리버스(Karen Rivers)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나고 자랐다. 『Before We Go Extinct』 (FSG, June 2016), 『What is Real』 (Orca Book Publishers, 2011), 『XYZ trilogy』 (independently published, 2011), 『Love Ish』 (Algonquin, March 2017), 『The Girl in the Well is Me』 (Algonquin, March 2016) 등 성인, 아동, 청소년을 위한 소설을 열여덟 권 발표했다.

제목 : THE TRUTH AS TOLD BY MASON BUTTLE

가제 : 메이슨 버틀이 꺼낸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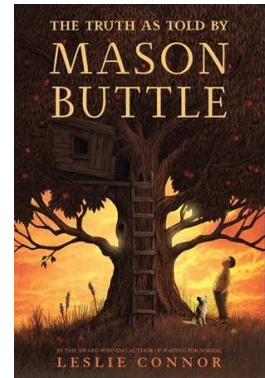
저자 : Leslie Connor

출판사: Katherine Tegen Books

발행일: 2018년 1월 23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이 소설의 주인공 메이슨 버틀을 이 이상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소설이 지금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본다.” -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원작소설 『How to Steal a Dog』의 원작자 바바라 오코너**

7학년생 메이슨 버틀은 학교에서 여러모로 시선을 한 몸에 받는 학생이다. 일단 키가 가장 커서 어딜 가나 눈에 띄기밖에 없고, 읽기와 쓰기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수업 시간에도 번번히 짓궂은 아이들의 표적으로 살아왔다. 또 땀을 무진장 많이 흘리는 것도 문제였다. 하지만 늘 밝고 쾌활한 아이답게 아이들이 놀리느라 사물함에 집어 던져 놓은 티셔츠도 흔쾌히 입고 다니는 호탕한 성격이 메이슨의 남다른 매력이다. 철자를 틀려서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비웃는다거나 집에서 가져온 개 사료를 과자라고 속이고 먹이는 것 정도는 메이슨에게 별로 상처가 되지도 않았다. 15개월 전, 절대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큰 상처가 생겨버렸기에, 그런 자잘한 장난 따위는 신경도 쓰이지 않았다. 메이슨의 유일한 친구, 늘 메이슨을 지켜주고 꼬마 시절부터 붙어 다녔던 소중한 친구 베니 킬마틴이 얼음장처럼 굳은 시체로 발견된 곳은 다름아닌 메이슨네 과수원. 꿈쩍 않고 풀 속에 쓰러진 베니를 처음 발견한 것도 메이슨이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메이슨은 베니를 발견한 나무와 주변 풍경, 그때의 모든 장면들을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베니 옆에 사다리가 있었다는 것, 사다리 맨 위칸이 망가져 있었는데 전날 저녁에 메이슨이 본 똑같은 사다리는 아주 멀쩡했다는 것, 어떻게든 베니가 다시 숨쉬게 만들려고 메이슨이 안간힘을 썼던 일까지 뇌리에 똑똑히 남아 있었다. 메이슨은 부모님 대신 키워준 삼촌과 할머니에게, 그리고 베니 사건의 수사를 담당할 마을 경찰서의 베어드 부소장에게도 그 날 본 일을 그대로 낱낱이 전했다. 하지만 누구도 메이슨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훌쩍 큰 키와 어린아도 아닌 나이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는 이유로 증언의 신빙성마저 의심 받는 메이슨. 베어드 부소장은 학교 선생님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여러 번 메이슨이 난독증이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노트와 연필을 내밀며 기억 나는 건 다 ‘써 보라고’ 요구했다. 베니의 사건은 진전도 없이 그렇게 질질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었다. 뭘 알고 싶은 건지, 하루가 멀다 하고 메이슨네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는 베어드 부소장을 대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베니는 그 날 왜 메이슨의 과수원에서 목숨을 잃었을까? 삼촌은 메이슨에게 엄마가 집 앞 도로에서 달리던 차에 광 부딪혀 순식간에 저 세상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언제 어떻게 죽을

지 모르는 법이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메이슨에게 설명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학교에서는 누가 뭐라고 놀리든 희희낙락 잘 견디고, 심지어 자신을 가장 심하게 괴롭히는 매트도 그 집 강아지를 자진해서 돌봐줄 정도로 아량이 넓고 사랑이 넘치는 메이슨에게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친구를 잊는다는 건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또 한 건의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메이슨은 큰 곤란에 처하고 만다. 베니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에 또 뽕뽕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자그마한 키에 철이 일찍 든 어른처럼 철학적인 소리를 곧잘 하고 하던 메이슨의 같은 학교 동급생, 칼빈 쳄스키가 감쪽같이 실종됐다. 보기만 하면 히죽거리거나 놀리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처음 인사를 나눈 날 프레첼을 내밀며 같이 먹자고 했던 다정한 친구 칼빈은 그 날부터 메이슨의 새로운 단짝이 되었다. 두 사람은 지하 공간에 아지트를 마련하고 골려 대는 아이들 눈을 피해 방과 후나 주말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갑자기 칼빈이 자취를 감춘 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메이슨에게 향했다. 칼빈의 실종은 베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 이번에도 메이슨은 알고 있는 사실을 한 치도 빠뜨리지 않고 진술하는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어줄까? 궁지에 몰린 메이슨은 직접 진실을 밝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남들보다 많이 뒤처지지만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주인공, 메이슨이 고된 세상과 견디기 힘든 사건을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이 맑고 투명한 메이슨의 시선을 통해 따뜻하게 그려진다. 연이어 발생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계속 흥미를 더해가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진다.

<저자 소개>

레슬리 코너(Leslie Connor)는 'ALA 슈나이더 가족 도서 상(ALA Schneider Family Book Award)' 수상작인 『Waiting for Normal』과 『Crunch』, 『Miss Bridie Chose a Shovel』, 『Dead on Town Line』 등 일곱 권의 아동 소설을 쓴 작가이다.